

한국과 중국의 재난 및 안전 인식 비교 분석*

이 정, 이재은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그 원인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재난관리 국제 협력은 우리나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의 공유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중 대학생 총 360명을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일반적 인식, 안전의식, 안전추구 행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재난 유형별로 피해심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재난 유형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재난 대응의 중요성에 있어서 국가별로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난 관리 주체의 중요성, 안전의식, 안전추구 행동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제어: 위기관리, 재난 인식, 재난 및 안전관리

1. 서론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보다 안전한 사회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현대 사회는 오히려 다양한 위험이 만연되는 현상을 겪고 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화, 탈산업화, 정보화, 저출산·고령화, 지구온난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환경변화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개인의 삶의 양식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주하, 2011: 3-4). 특히, 재난은 불확실성, 복잡성, 상호작용성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행정관리 대상과 구분되며, 자연환경의 변화와 사회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난 발생 빈도와 위험 정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난관리에 대한 대처에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상승과 더불어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를 제도적·기술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서정규, 2006: 1).

* 이 논문은 이정(2012)의 행정학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세계적으로 보면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2001년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2004년 서남아시아의 쓰나미,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2011년 일본의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등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온 초대형 재난으로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가져왔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이후 각종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2007년 허베이 스프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등 대규모 인적재난과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10년 태풍 곤파스 등이 발생하였다(장시성, 2008: 1-2). 이와 함께 중국은 2006년 5월 17일, 태풍 찰즈가 풍속 137km/h로 광둥성 동부 산터우를 강타하여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192가옥이 1.6m나 침수되었으며, 26억 위안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2006년 6월에는 중국 남부지역에 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홍수와 산사태 등을 일으켰고 특히 푸젠(福建), 후난(湖南), 구이저우(貴州) 지역의 피해가 심각하여,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267명, 실종자는 99명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67억 위안에 이르렀다(新華網 <http://www.xinhuanet.com>, 2011. 07. 18.). 이에 중국정부는 위기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무원에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국가 돌발 공공사건의 전체 응급 예방책’을 채택했으며 국무원과 각 지방정부에서도 위기관리 예방책을 채택했다. 이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안전과 사회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준 것(中國政府網 <http://www.gov.cn>, 2011. 07. 18)으로서, 중국에서는 공공위기 응급관리 체계의 핵심을 예방능력, 응급능력, 회복능력에 두고 있으며, 공공위기 응급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王贊成, 2007: 3).

많은 대형 재난사고는 국가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모든 시민들이 경악과 진을 느끼면서 시민 정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오늘 날에는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재난 발생은 이미 지역적·국가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난제로 급부상하였지만, 이들 초대형 재난에 대해 단일 국가만의 힘으로는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재난관리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며,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국가 간의 재난관리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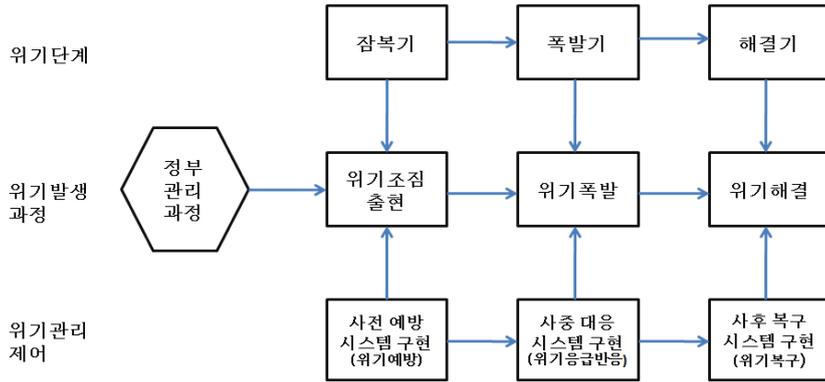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고,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원인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들의 재난 및 안전 인식에 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간의 인식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II. 재난 및 안전 인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위험과 비교하면, 안전은 사고 이전의 상태에서 사고 예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재해와 대비해서 보면,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수습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피해의 확산 방지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보안과 비교해서 보면, 과실에 의한 사고 외에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까지도 포함한다. 안전관리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과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이장국, 2007: 35).

인구 증가와 인구 집중에 의해 대도시 교통문제, 식량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따른 자원과 에너지 문제, 환경오염과 공해문제, 온실효과에 의한 기상이변에 따른 생태계 위협, 인위적인 돌발 사고의 빈번한 발생 및 국지적인 분쟁 등 국내·외적으로 잠재적인 재난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수해, 풍해, 해일, 설해, 한해, 지진, 화재, 폭발사고 등도 재난의 영역에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인식이 중요하다. 이는 위기관리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로서,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위기에 대해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이재은, 2012: 159). 이와 함께 재난관리란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비하며, 재난발생 후 그로 인한 물질·인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본래의 상태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재난에 대한 위협과 재난으로 인한 결과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김경안·유충, 1998: 17).

재난관리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재난관리체제에 대한 발전방향, 재난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학문분야별 재난관리 효율화, 그리고 예방중심의 재난관리 확립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이주호, 2012: 191). 최근 중국에서는 위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국가의 사회생활에서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관리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위기 발생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손해를 최소한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서 제어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기 예방단계, 위기 응급반응단계, 위기 회복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조치와 제도와 메커니즘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曾婷婷·陳小林, 2010: 3). 또한 공공위기 발생 과정은 “위기 징조-위기 발생-위기 해결”, 또한 위기 “잠복기-발생기-해결기” 라는 세 단계의 특성과 난점을 고려하여 위기의 예방 메커니즘을 수립하고(<그림 1> 참조), 위기 발생 중과 발생 후의 복구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에서 사전 예방 메커니즘은 예방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위기 인식 강화를 하며, 예방 정책 수행을 포함한다. 사중 메커니즘은 사건 발생원인 조사, 공공위기 소통 메커니즘 수립, 각 정부 조직 및 기구의 기능 개혁 등을 포함한다. 사후 복구 메커니즘은 사회 각계를 조직하고 업무를 재건하면서 평가하며, 경험을 습득하여 위기관리를 완성한다(曾婷婷·陳小林, 2010: 3).



<그림 1> 공공위기 발생 과정 및 관리

2. 재난 및 안전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1) 위기관리 시스템

윤명오·송철호(2003)에서는 민간자원조직의 연계 필요성과 정부의 재정 보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재은(2005)은 세계 각국이 기존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외에 대규모 시위, 파업, 폭동, 소요, 테러, 금융시스템 마비 위협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가 핵심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인식하면서, 국민의 건강, 안전 및 경제적 안녕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와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체계인 국가핵심기반 보호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재은(2006)에서는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을 강조하였다. 최병학·이재현(2006)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주도의 공동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한·중·일 재난관리의 국제협력 체제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최연철(2008)에서는 안전관리 철학과 안전 문화에 기반을 두고 안전관리는 사고원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는 철학에 입각하여 조직의 상급자로부터 모든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과 안전 의식을 강조하였다. Drabek(1985)은 재난대응에 있어서 재난 자체는 상호간 의사결정 환경의 분권화를 강요하며, 복구활동에 있어서는 더 많은 수의 기관들이 더해지며 복구과정에서의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보았다. Kreps(1991)는 긴급자원 조정모형을 제시하면서 인재와 자원의 효과적인 동원, 지역단위에서의 정보 전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전달, 목적·전략·자원을 둘러싼 대결의 해결, 국가와 지역사회에서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 Jalali(2002)는 재해 직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민간조직이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이들의 참여는 반드시 공공부문과 협력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구호활동과는 다른 영역, 즉 피해자들을 위한 권익옹호 및 정부활동에 견제세력으로서의 적대적 관계에 놓일 수 있다고 보았다. 滕五曉·夏劍

霏(2010)는 중국에서 응급관리를 실시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종합예방, 응급 보장, 종합구원 등 현존 응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정부에서 돌발 사건의 응급사무실을 설립하였는데 실제 작업을 할 때 협조기관의 권위성이 약하기 때문에 응급관리 시스템 개혁이 현재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주장하였다. 高小平(2010)은 정부응급관리정책과 조직이론에 있어서 현재 중국에서 완전한 위기 및 응급상태 관리법은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정부 위기관리에 관한 응급법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표 1> 위기관리 시스템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	비고
윤영오·송철호 (2003)	재난관리 거버넌스 구축 (문헌분석, 사례분석)	- 민간자원조직의 활동현황과 유형 및 재정적 구조 분석에 따른 연계 및 정부의 재정 보조의 필요성	한국
이재은 (2005)	미래 재난관리 발전 (문헌분석, 사례분석)	- 국가 경제와 정부의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체계인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필요성	한국
이재은 (2006)	국가위기관리 법제화 방안 (문헌분석)	-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관련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체계 구축	한국
최병학·이재현 (2006)	국제협력 방안 마련 (문헌분석, 사례분석)	- 국제협력 체제의 효과적인 구축	한국
최연철 (2008)	안전관리시스템 연구 (문헌분석, 설문조사)	- 안전관리는 사고원인의 사전 확인·조치를 통한 예방가능 철학 -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과 안전 의식을 지녀야 함	한국
Drabek (1985)	재난대응관리 (문헌분석)	- 재난복구활동에서는 많은 기관들의 참여와 복구 협조 필요	미국
Kreps (1991)	위기관리 조직화 (문헌분석)	- 긴급자원 조정모형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강조	미국
Jalali (2002)	정부와 민간조직관계 발전 (문헌분석)	- 터키 지진 분석을 통한 재난대응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은 협력적 관계 형성 필요	미국
滕五晓·夏剑霏 (2010)	정부 응급관리시스템 개혁 (문헌분석)	- 중국에서의 응급관리 중 응급관리 시스템 개혁 필요	중국
高小平 (2010)	정부의 위기관리 응급법 (문헌분석)	- 정부 위기관리에 관한 응급법 개선	중국

2) 재난 및 안전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서재호·이승중(2012)에서는 분석 결과, 주요 영향요인으로 제시한 소득, 실업률, 여성인구수, 검거율, 안전예산은 사회안전 영향요인 모형과 사회위험 영향요인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고, 박은숙·이재은(2009)은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국민생활위기에서의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최영희(2009)에서는 소방안전 체험을 한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 유치원생 교사를 대상으로 국민안전의식에 대한 소방안전체험의 효과를 검증

하였다. 李曉東(2010)은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안전의식 수준 개선을 통한 안전 관리 활동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유현정·이재은(2010)에서는 한·중·미·일 4개국 국민들이 지니는 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의식 및 평가를 비교·분석하여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서비스가 지향해야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정해모(2010)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 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현재 교육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 모델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張朕(2011)은 한국과 중국의 건설 근로자의 안전의식 비교 연구에서 한·중 건축 시공 근로자간의 안전의식의 차이점을 찾아내고 중국의 건축시장에 알맞은 시행가능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표 2> 재난 및 안전 인식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년도)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의 주요 내용	주요 변수	비고
서재호· 이승종 (2012)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영향요인 연구 (문헌분석, 실증분석)	- 소득, 실업률, 여성인구 수, 검거율, 안전예산은 사회안전 영향요인과 사회위험 영향요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소득, 실업률, 여성인구 수, 검거율, 안전예산	한국
곽은숙· 이재은 (2009)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 (문헌분석, 설문조사)	- 국민생활위기관리에서의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 방안 제시	사고발생 장소, 안전사고 경험, 안전교육, 학교안전제도 등	한국
최영희 (2009)	소방안전체험 효과성 (문헌분석, 설문조사)	- 국민안전의식에 대한 소방안전체험의 효과 검증	화재발생시 대피방법, 화재예방 중요성, 생명 위급 시 응급처치 등	한국
李曉東 (2010)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의식을 통해 안전관리활동 개선방안 (문헌분석, 설문조사)	- 재해예방활동의 건설현장 근로자를 재해경험과 관련 항목별 의식 - 안전의식수준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활동 개선	안전 이해도, 위험부분 처리방식, 안전과 공정 중요성, 재해 시 불편정도, 재해경험 등	중국
유현정· 이재은 (2010)	한·중·미·일 국민의 안전관리서비스인식 분석 (문헌분석, 설문조사)	- 안전사회구축을 위해 안전관리 서비스가 지향해 가야할 방향 모색	안전 인식수준, 위험요소 인식수준, 안전가치 인식, 최고통치자 역할, 기초자치단체장역할 등	한국
정해모 (2010)	안전교육모델 및 컨텐츠 개발 방향 (설문조사, 사례연구)	- 일반 시민의 안전의식 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 현재 교육시스템의 문제점 분석과 효율적인 소방안전교육모델의 개발 방향 제시	건물내부 안전성, 건물내부재난 대처방법, 소화기 및 완강기 사용법 숙지 등	한국
張朕 (2011)	한·중 건축근로자간의 안전의식의 차이점 분석 (문헌분석, 설문조사)	- 한·중 건축 근로자간의 안전의식 비교 - 중국 건축시장에 맞는 시행가능방안을 제안	건설재해 경험, 위험처리 방식, 안전교육 효율성, 안전에 대한이해도 등	중국

III. 실증 분석

1. 조사설계와 가설의 설정

설문조사는 한국 215명, 중국 145명으로 총 360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중국에서는 2011년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고, 한국에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10월 28일까지 28일간에 걸쳐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본추출은 한·중 대학생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을 대상으로 단순무작위 표본추출 방법으로 설문지를 배포, 수집하였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전체		한국		중국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빈도	유효 퍼센트
성별	남성	169	46.9	106	49.3	63	43.4
	여성	191	53.1	109	50.7	82	56.6
	합계	360	100.0	215	100.0	145	100.0
연령	18-21세	168	46.7	119	55.3	49	33.8
	22세-25세	140	38.9	77	35.8	63	43.4
	26-29세	52	14.4	19	8.8	33	22.8
	합계	360	100.0	215	100.0	145	100.0
학년	1학년	84	23.3	66	30.7	18	12.4
	2학년	74	20.6	40	18.6	34	23.4
	3학년	81	22.5	56	26.0	25	17.2
	4학년	60	16.7	40	18.6	20	13.8
	대학원	61	16.9	13	6.0	48	33.1
	합계	360	100.0	215	100.0	145	100.0
전공	인문사회	277	76.9	186	86.5	91	62.8
	자연과학	83	23.1	29	13.5	54	37.2
	합계	360	100.0	215	100.0	145	100.0
소득	200만원이하	62	17.2	25	11.6	37	25.5
	200-300	118	32.8	63	29.3	55	37.9
	300-400	88	24.4	54	25.1	34	23.4
	400-500	47	13.1	35	16.3	12	8.3
	500만원이상	45	12.5	38	17.7	7	4.8
	합계	360	100.0	215	100.0	145	100.0
재난 경험	있다	79	21.9	36	16.7	43	29.7
	없다	281	78.1	179	83.3	102	70.3
	합계	360	100.0	215	100.0	145	100.0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위기관리 인식 비교를 통해 재난 및 안전 인식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표 4> 연구의 가설

연구가설 1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사이에는 재난 유형별로 피해심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2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사이에는 재난관리 각 단계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3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사이에는 재난관리 각 주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4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사이에는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 5	재난관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6	재난관리 주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설 검증

1) 인식차이 분석

(1) 재난 유형에 따른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우선, 자연재난의 피해 심각성에 대한 한·중 인식 차이는 태풍, 지진, 폭우, 폭설, 가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태풍과 폭우의 피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적재난의 피해 심각성에 대한 한·중 대학생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대형화재, 가스폭발, 건축물 붕괴,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형화재에 대해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핵심기반 시설의 피해 심각성에 대한 한·중 대학생의 인식 차이를 알아본 결과, 금융, 교통·수송, 정보통신, 학교교육, 원자력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원자력 피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중국은 교통·수송 피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자연재난, 인적재난, 핵심기반시설의 피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 차이

구분		태풍	지진	폭우	폭설	가뭄	전체	비고
자연재난	한국	빈도 (%)	91 (42.3%)	4 (1.9%)	108 (50.2%)	4 (1.9%)	8 (3.7%)	x ² =28.845 df=4 p=0.000
	중국	빈도 (%)	35 (24.1%)	9 (6.2%)	85 (58.6%)	15 (10.3%)	1 (.7%)	
구분		대형화재	가스폭발	건축물 붕괴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전체	비고
인적재난	한국	빈도 (%)	153 (71.2%)	29 (13.5%)	26 (12.1%)	0 (.0%)	7 (3.3%)	x ² =27.145 df=4 p=0.000
	중국	빈도 (%)	67 (46.2%)	32 (22.1%)	29 (20.0%)	4 (2.8%)	13 (9.0%)	
구분		금융	교통·수송	정보통신	학교교육	원자력	전체	비고
핵심기반재난	한국	빈도 (%)	11 (5.1%)	51 (23.7%)	33 (15.3%)	5 (2.3%)	115 (53.5%)	x ² =110.281 df=4 p=0.000
	중국	빈도 (%)	24 (16.6%)	71 (49.0%)	37 (25.5%)	11 (7.6%)	2 (1.4%)	

(2)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한·중 대학생의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방 중요성, 대비 중요성, 복구 중요성에 있어서 한·중 대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응 중요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한·중 대학생의 재난관리 활동에 대한 인식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예방	한국	215	4.5302	.73483	.05011	4.4315	4.6290	18.456**
	중국	145	4.1448	.96450	.08010	3.9865	4.3031	
	합계	360	4.3750	.85490	.04506	4.2864	4.4636	
대비	한국	215	4.3488	.74519	.05082	4.2487	4.4490	2.269
	중국	145	4.2138	.95151	.07902	4.0576	4.3700	
	합계	360	4.2944	.83581	.04405	4.2078	4.3811	
대응	한국	215	4.5256	.66138	.04511	4.4367	4.6145	.000
	중국	145	4.5241	.69804	.05797	4.4096	4.6387	
	합계	360	4.5250	.67542	.03560	4.4550	4.5950	
복구	한국	215	4.2558	.85087	.05803	4.1414	4.3702	5.754**
	중국	145	4.0207	.99631	.08274	3.8572	4.1842	
	합계	360	4.1611	.91818	.04839	4.0659	4.2563	

(3) 재난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한·중 대학생의 재난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앙 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에 있어서 한·중 대학생에 따라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한·중 대학생의 재난관리 주체에 대한 인식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중앙 정부	한국	215	4.3860	.74557	.05085	4.2858	4.4863	0.702
	중국	145	4.4552	.79913	.06636	4.3240	4.5863	
	합계	360	4.4139	.76724	.04044	4.3344	4.4934	
광역 자치 단체	한국	215	4.2698	.82131	.05601	4.1594	4.3802	0.584
	중국	145	4.3379	.84344	.07004	4.1995	4.4764	
	합계	360	4.2972	.82980	.04373	4.2112	4.3832	
기초 자치 단체	한국	215	4.2047	.82879	.05652	4.0932	4.3161	0.064
	중국	145	4.2276	.87198	.07241	4.0845	4.3707	
	합계	360	4.2139	.84532	.04455	4.1263	4.3015	
NGO	한국	215	3.5302	1.04469	.07125	3.3898	3.6707	2.846
	중국	145	3.7172	1.01176	.08402	3.5512	3.8833	
	합계	360	3.6056	1.03422	.05451	3.4984	3.7128	
개인	한국	215	4.1488	.95025	.06481	4.0211	4.2766	3.125
	중국	145	4.3310	.97222	.08074	4.1714	4.4906	
	합계	360	4.2222	.96198	.05070	4.1225	4.3219	

(4)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대한 인식차이 분석

한·중 대학생의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대한 인식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요성 인식, 개발제한, 피해가능성, 비용부담, 예방투자, 안전 확보, 안전가치, 기상변화 고려,

관계기관 신고, 교육 참여, 성금기부, 자원봉사에 있어서 한·중 대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한·중 대학생의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대한 인식차이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F	
					하한값	상한값		
중요성인식	한국	215	3.2744	1.04749	.07144	3.1336	3.4152	26.365**
	중국	145	3.8069	.82745	.06872	3.6711	3.9427	
	합계	360	3.4889	.99854	.05263	3.3854	3.5924	
개발제한	한국	215	3.9070	.90207	.06152	3.7857	4.0282	3.864*
	중국	145	3.7034	1.04831	.08706	3.5314	3.8755	
	합계	360	3.8250	.96740	.05099	3.7247	3.9253	
피해가능성	한국	215	3.9953	.93478	.06375	3.8697	4.1210	13.439**
	중국	145	3.5862	1.17607	.09767	3.3932	3.7793	
	합계	360	3.8306	1.05644	.05568	3.7211	3.9401	
비용부담	한국	215	3.7907	.92115	.06282	3.6669	3.9145	13.900**
	중국	145	3.3655	1.24060	.10303	3.1619	3.5692	
	합계	360	3.6194	1.08016	.05693	3.5075	3.7314	
예방투자	한국	215	4.3628	.76029	.05185	4.2606	4.4650	0.193
	중국	145	4.4000	.82832	.06879	4.2640	4.5360	
	합계	360	4.3778	.78748	.04150	4.2962	4.4594	
안전확보	한국	215	3.8791	.82274	.05611	3.7685	3.9897	26.396**
	중국	145	4.3379	.84344	.07004	4.1995	4.4764	
	합계	360	4.0639	.86002	.04533	3.9747	4.1530	
안전가치	한국	215	4.4140	.80929	.05519	4.3052	4.5227	21.806**
	중국	145	3.9862	.91277	.07580	3.8364	4.1360	
	합계	360	4.2417	.87677	.04621	4.1508	4.3325	
기상 변화고려	한국	215	4.1488	.75268	.05133	4.0477	4.2500	36.043**
	중국	145	4.6345	.75290	.06252	4.5109	4.7581	
	합계	360	4.3444	.78865	.04157	4.2627	4.4262	
관계기관 신고	한국	215	3.9581	.94380	.06437	3.8313	4.0850	1.161
	중국	145	4.0690	.97650	.08109	3.9087	4.2293	
	합계	360	4.0028	.95730	.05045	3.9036	4.1020	
교육참여	한국	215	3.3581	1.02634	.07000	3.2202	3.4961	35.267**
	중국	145	3.9931	.94646	.07860	3.8377	4.1485	
	합계	360	3.6139	1.04139	.05489	3.5060	3.7218	
성금기부	한국	215	3.5953	.92169	.06286	3.4714	3.7193	30.521**
	중국	145	4.1379	.90232	.07493	3.9898	4.2860	
	합계	360	3.8139	.95078	.05011	3.7153	3.9124	
자원봉사	한국	215	3.8233	.95527	.06515	3.6948	3.9517	25.005**
	중국	145	4.3241	.89662	.07446	4.1770	4.4713	
	합계	360	4.0250	.96278	.05074	3.9252	4.1248	

2) 영향관계 분석

(1) 재난관리 활동별 중요성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 상관관계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¹⁾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난관리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9>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

구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Pearson 상관계수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	.341**	.369**	.297**	.262**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N=360					

한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0> 한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

구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Pearson 상관계수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	.261**	.246**	.233**	.257**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N=215					

중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1> 중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

구분		예방	대비	대응	복구
Pearson 상관계수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	.521**	.540**	.389**	.317**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N=145					

(2) 재난관리 주체별 중요성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 상관관계

1)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 측정에 사용된 지표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중국에서 사용된 측정지표에 따른 신뢰도는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 측정변수에 대한 신뢰도

요인		측정지표의 수	측정변수의 Cronbach'α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	전체	12	0.824
	한국	12	0.831
	중국	12	0.834

재난관리 주체에 대한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난관리 주체(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2> 재난관리 주체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

구분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
Pearson 상관계수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	.320**	.380**	.266**	.304**	.336**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N=360						

한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주체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주체(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3> 한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주체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

구분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
Pearson 상관계수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	.217**	.280**	.227**	.259**	.262**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N=215						

중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주체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주체(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4> 중국 대학생의 재난관리 주체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

구분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
Pearson 상관계수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	.448**	.511**	.318**	.351**	.418**
**.상관계수는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함. N=145						

3) 가설의 검증

가설 1의 경우,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사이에는 재난 유형별(자연재난, 인적재난, 핵심기반시설 재난)로 피해심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발생형태(태풍, 화재, 원자력 사고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설 2에서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사이에는 각 단계별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대응 중요성에 있어서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은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사이에는 재난관리 각 주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가설 4는 한국 대학생과 중국 대학생 사이에는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없었다. 가설 5에서는 재난관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난관리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가설 6에서는 재난관리 주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난관리 주체(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비정부조직(NGO), 개인)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15> 검증결과

구분	가설	채택 여부
가설 1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사이에는 재난 유형별로 피해심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채택
가설 2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사이에는 재난관리 각 단계별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부분 채택
가설 3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사이에는 재난관리 각 주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4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사이에는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기각
가설 5	재난관리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 6	재난관리 주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안전의식 및 추구행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IV. 분석 결과

1. 분석결과의 요약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재난의 피해 심각성 인식, 재난관리 활동의 중요성 인식, 재난관리 주체별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대한 한국과 중국 대학生の 위기관리 인식을 비교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피해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 자연재난은 한국과 중국이 태풍, 지진, 폭설, 가뭄에 비해 폭우 피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했으며, 인적재난은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이 가스폭발, 건축물 붕괴,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에 비해 대형화재 피해를 높게 인식했다. 핵심기반 피해 인식에 대해서는

한국은 원자력 피해를, 중국은 교통·수송 피해를 높게 인식하였다.

둘째, 재난관리 활동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이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응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재난관리 주체 인식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넷째,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안전의식의 중요성 인식, 개발제한, 피해가능성, 비용부담, 예방투자, 안전확보, 안전가치, 기상변화고려, 관계기관신고, 교육참여, 성금기부, 자원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개발제한, 예방투자, 관계기관신고는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재난관리 활동별 중요성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모두 재난관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섯째, 재난관리 주체별 중요성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모두 재난관리 주체인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NGO, 개인의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06년 6월에 중국 남부지역에서 폭우가 빈번히 발생해 홍수와 산사태 등을 일으켰고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267명, 실종자는 99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 6월에 홍수로 인한 피해자는 4300만 명, 사망자는 176명, 실종자는 5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2003년 2월에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23명, 부상자는 399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한국 대학생이 원자력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며, 중국 2008년 사천 대지진으로 인해 중국 대학생이 교통·수송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2.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 대학생은 재난 유형에 따라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관해 폭우와 대형화재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2) 한국과 중국 대학생은 각 단계별 활동(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 매우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3) 한국과 중국 대학생은 각 주체(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비정부조직(NGO), 개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개인에 대해 매우 높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인식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중국 대

학생은 핵심기반 재난의 피해심각성에 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원자력 재난의 피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중국은 교통·수송의 피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2) 한국과 중국 대학생은 비정부조직(NGO)에 관해 인식의 차이가 있다. 한국은 비정부조직(NGO)의 중요성을 보통 수준에서 인식한 반면에, 중국은 약간 높게 인식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간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첫째, 한국과 중국에서 폭우와 대형화재 재난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재난에서는 폭우, 인적재난에서는 대형화재의 피해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1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로 인해 한국은 원자력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은 2008년 중국 사천 대지진으로 인해 교통·수송의 피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성과 문화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재난 및 안전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재난관리 인식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재난 유형별(자연재난, 인적재난, 핵심기반시설 재난)로 피해심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발생 형태(태풍, 화재, 원자력 사고 등)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에 관한 인식에 따라 부분채택이 되었다. 대응 중요성에 있어서 국가별에 따라 높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재난관리 주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에 관한 인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모두 재난관리 활동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재난관리 주체 중요성 인식과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 모두 재난관리 주체 중요성 인식은 안전의식 및 안전추구 행동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이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인식의 격차가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 중국의 대학생은 재난 유형별(자연재난, 인적재난, 핵심기반재난)로 피해심각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재난 유형에 대한 인식 차이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재난관리 활동 중에서 대응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재난 예방, 대비, 복구의 중요성의 차이는 알 수 없었다.

참고문헌

- 곽은숙·이재은. 2009. 국민생활위기에서의 학교생활안전사고 개선방안: 충북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의 인식에 대한 실증분석. 국가위기관리연구. 3(2): 102-132.
- 김경안·유충. 1997. 재난대응론. 서울: 반.
- 김형렬. 1987. 정책집행에 있어서 위기관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집. 18: 65-87.
- 남궁근. 1995. 재해관리 행정체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29(3): 957-981.
- 노화준. 1991. 위기 발생의 의사결정 경로와 위기관리. 행정논총. 29(1): 122-145.
- 서재호·이승중. 2012. 지역주민의 사회안전 및 사회위험 인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8(3): 1-20.
- 서정규. 2006.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송유진. 2008. 서울·상해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 식품소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 유현정·이재은. 2010. 한·중·미·일 4개국 소비자의 안전의식과 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평가. 국가위기관리학회보. 2(2): 33-51.
- 윤명오·송철호. 2003. 재난·재해관리에 있어서 NGO의 역할과 기능. 국토. 258: 66-76.
- 윤병준. 2007. 재난과 위기관리 해설. 파주: 한국학술정보.
- 이상팔. 1996. 위기관리체계의 지능적 실패에 의한 학습효과 분석: 삼풍백화점 사고 전·후의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2): 113-127.
- 이선문. 2000. 한국재난 관리체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재은·김겸훈·류상일. 2005.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와 재난관리시스템 발전전략: 국가핵심기반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5(3): 53-83.
- 이장국. 2007. '안전'에 대한 용어적 및 어원적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22(2): 28-35.
- 이재은. 2004. 재난관리와 국가핵심기반 보호체계 구축방안. 한국정책논집. 4: 77-90.
- 이재은 외. 2006.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재은. 2006.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2): 19-35.
- 이재은. 2012.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정. 2012. 한국과 중국의 위기관리 인식 비교: 한·중 대학생의 재난 및 안전 인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 이주하. 2011. 한국의 사회적 위험 관리전략과 거버넌스. 정부학연구. 17(2): 3-30.
- 이주호. 2012.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정의 지대추구 분석: 기대-성과 불일치 연구방법의 적용을 중

- 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1): 191-217.
- 장시성. 2008. 한국의 재난관리체제 구축방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 정기성. 2001. 한국의 재난관리체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정해모. 2010. 시민 안전의식 조사를 통한 소방안전교육 모델의 개발방법.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조성제. 2010.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6(2): 1-18.
- 최병학·이재현. 2006. 한·중·일 재난관리 국제협력체제 구축방향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2(2): 62-73.
- 최연철. 2008. 항공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정기항공사 조종사와 정비사의 인식. 한국항공운항학회지. 16(3): 15-20.
- 최영희. 2009. 소방안전 체험교육이 안전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Barton, A. H. 1963. *Social Organization Under Stress: A Sociological Review of Disaster Studies*. Washington: NAS-NRC.
- D'Aveni, Richard A., & Ian C. MacMillan. 1990. Crisis and the Content of Managerial Communications: A Study of Focus of Attention of Top Managers in Surviving and Failing Firm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 634-657.
- Drabek, Thomas E. 1985.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85-92.
- Gladwin, Thomas N., & Rajesh Kumar. 1987. The Social Psychology of Crisis Bargaining: Toward a Contingency Model.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22(1): 23-31.
- Herman, Charles F. 1972. Threat, Time, and Surprise: A Simulation of International Crises. Charles F. Hermann. ed. *International Crises: Insights from Behavioral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Hoetmer, Gerard J. 1991. Introduction. Thomas E. Drabek, & Gerard J. Hoetmer. (eds.).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Jackson, Robert J. 1976. Crisis Management and Policy-Making: An Exploration of Theory and Research. Richard Rose. ed. *The Dynamics of Public Policy*.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Inc.
- Jalali, R. 2002. Civil Society and the State: Turkey after the Earthquake. *Disasters*. 26(2): 120-139.
- Kreps, Gary A. 1991.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edited by Thomas E. Drabek, and Gerard J. Hoetmer. ed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Petak, William J. 1985.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3-7.
-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66. Chicago, IL: G. & C. Merriam Co.
- 高世屹. 2003. "媒体在危机管理中的作用". 中評网. 6月14日.
- 李澤洲. 2003. "建构危机時期的政府治理机". 中國行政管理. 第6期.
- 李曉東. 2010. "關於對建筑現場工人們的認識調查來進行安全認識的改善方案研究". 碩士論文. 嶺南大學.
- 滕五曉·夏劍霽. 2010. "基于危机管理模式的政府應急管理体制研究". 北京政學院學報. 6月9日.
- 王贊成. 2007. "城市公共危机應急体系建設初探". 碩士論文. 南京理工大學.
- 吳興軍. 2004. "公共危机管理的基本特征与机制构建". 華東經濟管理. 第18卷 第3期.
- 薛瀾·張强. 2003. "鐘開斌危机管理轉型期中國面臨的挑戰". 清華大學出版社. 第25頁.
- 朱德武. 2002. "危机管理—面對突發事件的抉擇". 廣東經濟出版社. 第6頁.
- 曾婷婷·陳小林. 2010. "我國公共危机管理現狀与机制构建". 電子科技大學政治与公共管理學院.
- 張朕. 2011. "關於韓國和中國的建築工人的安全認識比較". 碩士論文. 大丘大學.
- <http://www.xinhuanet.com>. 新華网 (2011. 07. 18).
- <http://www.gov.cn>. 中國政府网 (2011. 07. 18).

李 靜: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석사학위(논문: 한국과 중국의 위기관리 인식 비교: 한·중 대학생의 재난 및 안전 인식을 중심으로, 2012)를 취득하였다(lijing005@gmail.com).

李在恩: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 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2000), 현재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위기관리, 조직 이론, 정책집행 등이며, 위기관리학(2012), 재난관리론(공저, 2006) 등의 저서와 주요 논문으로는 "재난관리 역량 강화와 재난관리서비스의 공공재적 특성(2011)", "뉴테러리즘 환경하에서의 국가핵심기반 보호대상 분석(2011)", "Protecting Maritime Global Critical Infrastructure: Oil Spill Disaster in the Strait of Malacca and Singapore(2011)" 등이 있다(jeunlee@chungbuk.ac.kr).

투 고 일: 2012년 06월 20일

수 정 일: 2012년 07월 14일

게재확정일: 2012년 07월 20일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between China and Korea

Jing Lee, Jae Eun Lee

Recently, all most all countries and citizens in the world have been faced with a lot of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rainstorms, floods, heavy snowstorms and others. In order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the ordinary peopl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saster and safety perception between China and Korea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respond properly to the disasters. For attaining the research goal, this research conducted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360 people (215 in Korea and 145 in China) to gain information as to the students'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disasters and safety perception. As a result, we suggested that there is no difference gap between the Korean and Chinese students. Responses from the two groups varied little.

Key words: crisis management, disaster percepti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